

## 신에게 바치는 달콤한 맛

**핵심 구절:**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제단에서 태워야 합니다. 그것은 번제, 음식 제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입니다."

**레위기 1:9**

**선택한 성구:**

**레위기 1:1-17**

후각이 보여주는 상징성은 성경에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의 도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바울은 이스라엘

성막의 의식과 관련하여 성소의 금제단에서 향을 피우고 그 냄새가 두 번째 휘장을 넘어 지성소까지 스며들었던 이스라엘 성막의 예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행위에 대한 지침에는 "그래서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정기적으로 불타게 될 것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1-8

성막의 예배를 관장하는 지침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속죄일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 제물의 피를 지성소로 가져가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금제단에서 향을 태워 아론이 휘장 아래를 통과하기 전에 그 연기와 냄새가 지성소에 스며들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죽을 것입니다. (레위기 16:11-14). 향을 태우는 연기와 냄새는 희생 제사가 제대로 수행되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는 증거였습니다.

번제단에서 번제된 동물 희생도 핵심 구절과 그 문맥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께 단맛을 드리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1:5-9). 고기 또는 곡물 제물도 주님의 지시에 따라 제단에서 불에 태울 때 마찬가지로 "달콤한 맛"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2:1-9

앞서 "달콤한 맛"으로 여겨졌던 이스라엘의 의식은 모두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라간 예수님의 사역, 순종, 희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리켰습니다. (에베소서 5:2). 주님을 따르는 헌신된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희생하고 침례를 받도록 초대받습니다. (로마서 12:1, 6:3-4). 그리스도인의 희생 사역은 특히 "그리스도의 몸"의 동료 지체들을 대신하여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12-14, 27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선물을 보낸 희생의

증거를 암시하면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희생"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성막의 교훈을 교회에 적용하는 바울 자신의 권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희생과 봉사의 진심을 통해 그분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진정성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각의 상징성은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과 단순한 립 서비스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생의 '냄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진리가 우리의 영적 삶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특권을 드러내야 하며, 주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헌신의 달콤한 냄새가 강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5:13; 요한일서 4:7-11